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 등록교우 : 박성대 집사(아론 목장), 오동호 집사(아론 목장)
3. 교우소식 : 고 장승호 집사님의 장례식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 위로 바랍니다.
4. 교역자 부임 : 허영 전도사님이 교육부서 담당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5. 전도대상자 작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6. 다음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새생명 축제 주일 선포식 및 향후 세워질 향존직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7.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 담당은 오진석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황희용 권사님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예배기도(오전)	김윤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신동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	유숙정 권사	황희용 권사	정진숙 권사
주일식사담당	오효근 권사 조선경 집사 금재구 집사	김민자 집사 최순애 집사 김화현 집사	정진숙 권사 배은희 집사 차미자 집사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진 집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10/7)	주사랑목장(10/14)	에덴목장(10/21)	갈렘목장(10/28)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미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 *성 시 교 독 교독문 85번(요한1서 4장) 다 같 이
- *경 배 찬 송 23장(통 23장) 다 같 이
- *참 회 기 도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 찬 송 91장(통 91장) 다 같 이
- 대 표 기 도 권용기 집사

봉헌과 말씀

- 성 경 봉 독 수 24:15 인 도 자
-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 봉 헌 기 도 인 도 자
- 말 씬 선 포 ... '오직나와내집은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 교 회 소 식 다 같 이
-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말
의
말
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장 2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 같 이
- 목 상 기 도 은혜를 구하며 다 같 이
- 찬 송 413장 (통 470장) 다 같 이
- 기 도 유숙정 권사
- 특 별 찬 양 누 구 든 지
- 성 경 봉 독 딘후 4:1-8 다 같 이
- 말 씬 선 포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잊지 말자' 허영진 목사
- 기 도 인 도 자
- 교 회 소 식 인 도 자
- 찬 송 379장(통 429장) 다 같 이
- 축 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15:15-20 '아버지의 참아들'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마 26:36-46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시 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49:13-20 '주의 영광이 더해매'(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선택, 죽음의 길과 삶의 길'

한겨울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날, 조선은 지독한 전쟁을 치른다. 병자호란이다. 1636년 조선, 청나라의 침략에 왕은 궁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점점 옥죄어 오는 청의 칼끝에 왕과 신하들이 불신과 대립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청의 집요한 공격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만다. 왕과 신하들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지 47일 만이다. 흔히, 삼전도의 굴욕(三田渡의 屈辱)이라고 표현된다. 병자호란은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역사다. 그래서일까. 많이들 외면하며, 내심 드러내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드디어 쉽게 접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남한산성>을 통해서 말이다.

추석연휴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오랜 만에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140분가량의 러닝타임. 하지만 지루하지는 않았다. 이는 배우들의 활약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영화에서는 인물들을 클로즈업하고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이 반영된 대사에 집중 조명한다. 즉, 청과의 화친을 도모한 후에 후일을 기약하자는 주화파의 최명길(이병헌 분), 명과의 대의명분을 지켜 끝까지 항전을 주장하는 척화파의 김상헌(김윤석 분)의 설전(舌戰)은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집중하게 한다. 게다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화친이나 항전이나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인조(박해일 분)의 고뇌는 그 당시 무능한 조선 왕조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만 영화에서 인조의 고뇌를 상당 부분 들어낸 것 같아 아쉽다. 실리와 명분 뒤에는 결국 선택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대립하는 자들의 이야기 못지않게 쏟아지는 주장들 사이에서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이의 고뇌에 찬 이야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원작인 <남한산성>의 김훈 작가는 이 부분을 '아버지로서의 선택'이라고 했다. 이 고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 보는 내내 먹먹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버릴 것인가, 아들을 위해 인류를 버릴 것인가. 결론론적인 지적이지만, 인조가 최명길이나 김상헌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다뤄졌다면 더 깊이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이 가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 보면 어떨까 싶다.

Written by 허영진